

블랙핑크 온라인 공연, 미국서 가장 많이 봤다



▲ '더 쇼' 공연을 펼치고 있는 블랙핑크. 사진=YG엔터테인먼트

블랙핑크의 첫 온라인 콘서트 '더 쇼' (THE SHOW)를 가장 많이 시청한 국가는 미국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개최된 '더 쇼' 멤버십 가입자 가운데 미국에서 가입한 인원이 19.2%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어 태국, 필리핀, 일본, 멕시코, 한국,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캐나다, 영국 등이 뒤를 이었다.

유튜브와 파트너십을 맺고 생중계된 '더 쇼'의 멤버십 가입자는 약 28만 명으로 집계됐다. 유튜브에 접속이 되지 않는 중국 팬층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소속사는 "K팝 걸그룹이 라이브스트림 콘서트로 한번에 끌어모은 관객수로는 최다치"라고 설명했다.

블랙핑크는 전세계 가수 가운데 유튜브 구독자가 두 번째로 많은 정도로 유튜브에서 영향력이 높다. 접근성이 높은 플랫폼으로 꼽히는 유튜브가 블랙핑크와 온라인 공연을 협업한 것도 이런 영향력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블랙핑크 유튜브 구독자 수는 현재 5천680만명으로 전 세계 가수 가운데 구독자 1위인 저스틴 비버(6천70만명)를 추격하고 있다.

여자친구 소원, '나치 연상 마네킹 포옹' 사과



▲ 사진=소원, 쏘스뮤직

걸그룹 여자친구 소원이 나치 장교 군복과 비슷한 군복 차림의 마네킹을 포옹한 사진으로 논란이 일자 2일 사과했다.

소원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군복을 입은 남자 마네킹의 허리를 감싼 채 이를 바라보는 사진을 올렸다. 이를 본 해외 누리꾼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전쟁범죄를 언급하며 소원을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다.

논란이 일자 소원은 사진을 곧바로 삭제했고, 소속사 쏘스뮤직은 "역사적 사실과 사회 문제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던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이어 "아티스트 본인도 사진 내용의 의미를 인지하고 매우 놀라 즉시 사진을 삭제했으며 책임을 느끼고 마음 아파하고 있다"고 전했다.

논란의 사진은 지난해 11월 여자친구의 컴백쇼 비하인드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대여한 경기 파주의 한 카페에서 촬영한 것으로, 소속사는 관련 영상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BTS, 니켈로디언 '키즈 초이스 어워즈' 후보



▲ 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BTS)이 '2021 키즈 초이스 어워즈' (Kids Choice Awards)에서 3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3일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방탄

소년단은 이날 미국 엔터테인먼트 채널 니켈로디언(Nickelodeon)이 발표한 '2021 키즈 초이스 어워즈' 수상 후보 명단에서 '페이보릿 뮤직 그룹(Favorite Music Group)' '페이보릿 송(Favorite Song)' '페이보릿 글로벌 뮤직스타(Favorite Global Music Star)' 등 세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8년 '키즈 초이스 어워즈'에서 '페이보릿 글로벌 뮤직스타' 상을 처음 받았다. 지난해에는 '페이보릿 뮤직 그룹' 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블랙핑크도 '페이보릿 뮤직 컬래버레이션' 부문과 '페이보릿 뮤직 그룹' 후보로 지명됐다.

'키즈 초이스 어워즈'는 시청자들이 직접 선정한 음악, 방송, 영화 등 각 분야 최고 스타들을 초청하는 니켈로디언의 대표적인 시상식으로 올해는 3월 13일 열린다.

숫자퍼즐 정답

5	8	1	6	9	2	7	4	3
9	7	3	1	8	4	5	2	6
4	6	2	3	5	7	9	8	1
1	3	4	5	2	6	8	9	7
8	5	9	7	4	3	6	1	2
6	2	7	8	1	9	3	5	4
7	1	8	2	6	5	4	3	9
3	4	5	9	7	1	2	6	8
2	9	6	4	3	8	1	7	5

광고 그래픽 디자이너 모집

모집 인원

풀타임 디자이너 1명

제출 서류

이력서, 포트폴리오 각 1부

서류 제출 방법

info@townnewsusa.com 이메일 제출

기타

서류 심사 후 인터뷰 일정은 개인별 통보함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404-0027 (Rosecrans Ave + Valley View Ave)